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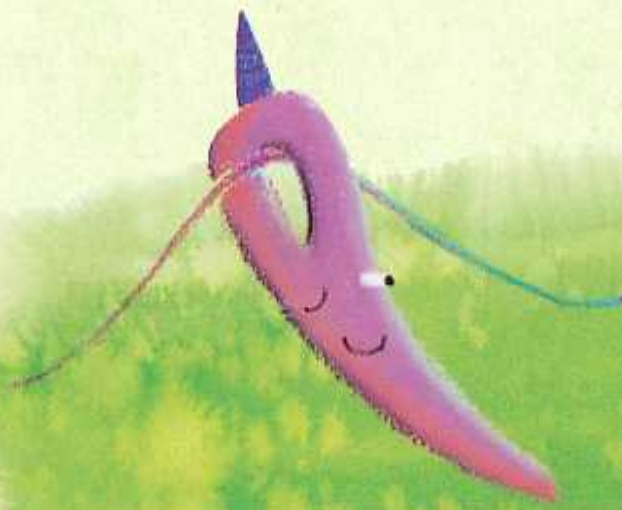
##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말하기

1 시 속 인물의 행동을 떠올리며 「풀이래요」를 읽어 봅시다.

### 풀이래요

글: 손동연, 그림: 성영란

아빠는  
 날 보고  
 \* 강아지풀이래요.  
 아빠 뒤만  
 졸래졸래  
 따라다닌다고  
 -아이고,  
 \* 요 귀연 강아지풀아!  
 그래요.



\* **강아지풀**: 강아지 꼬리 모양의 연한 녹색 또는 자주색 꽃이 줄기 끝에 피는 식물.

\* **귀연**: '귀여운'의 시적 표현임.



엄마는  
 날 보고  
 \* 도깨비바늘이래요.  
 엄마에게  
 \* 꼬옥 붙어  
 안 떨어진다고  
 -아유,  
 요 예쁜 도깨비바늘아!  
 그래요.

내가  
 풀이면  
 엄마 아빤 들판이지 뭐.  
 날 안아 주시는.....



\* 도깨비바늘: 바늘 모양의 열매가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는 식물.

\* 꼬옥: '꼭'의 시적 표현임.



## 2 「풀이래요」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(1) 아빠와 엄마는 ‘나’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셨나요?

(2) ‘나’는 왜 아빠와 엄마를 들판이라고 했나요?

## 3 「풀이래요」를 읽고 장면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.

**활동** **붙임 1**의 붙임딱지를 활용하세요.

시의 장면을 떠올리는 방법	떠올린 장면
시의 내용을 생각하며 장면 떠올리기	
	아빠, 엄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하는 아이의 표정이 떠올라.
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장면 떠올리기	



- 4 친구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「풀이래요」를 다시 읽고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.

**활동** **방법** 1의 붙임딱지를 활용하세요.

아빠는 날 보고 강아지풀이래요.	엄마는 날 보고 도깨비바늘이래요.

- 5 「풀이래요」에서 떠올린 장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.

엄마께 꼭 붙어서 안 떨어지는  
아이의 모습을 도깨비바늘로  
표현한 것이 재미있어.

아빠와 엄마를  
좋아하는 아이의 마음이  
잘 느껴지는 시야.



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 
시를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.



6 장면을 떠올리며 「허수아비」를 읽어 봅시다.

허수아비

이기철

새 떼를 쫓으려고 서 있는 줄 알지만  
나는 새 떼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  
사람들이 가고 나면  
어깨 위에 새 떼를 불러 함께 놀지  
콧노래를 부르면  
들판도 흥에 겨워 넘실넘실

## 7 「허수아비」를 읽고 장면을 떠올려 말해 봅시다.



시의 내용을  
생각하며 장면을  
떠올려 봐요.

시 속 인물의 마음이나  
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 
장면을 떠올려 봐요.



## 8 「허수아비」를 읽고 떠올린 장면을 16쪽에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.

## 9 「허수아비」를 다시 읽고 떠올린 장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.

허수아비가 어깨 위에  
새들을 불러 함께 노는  
장면이 정답게 느껴졌어.

